

‘무주공산’ 순천, 금배지 누가 품나

이정현 수도권 출마선언...서갑원·노관규·장만채 포함 8명 거론
지역정세 고려 ‘민주당 공천=당선’ 가능성 ↑...당내 경쟁 격화될 듯



민주당 '빅3'. 왼쪽부터 노관규, 서갑원, 장만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3선)의 수도권 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순천에서 누가 금배지를 품을지 주목된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순천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빅3' 등을 비롯한 각종 소속 입지자들은 이정현 의원의 수도권 출마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며 향후 표심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지지세가 4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을 고려해 이 의원의 선택에 커다란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지역정세를 고려할 때 '민주당 공천=당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당내 경선 준비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 다.

현재 순천에서 총선을 준비하

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8명에 이른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서갑원 전 의원, 노관규 전 순천시장,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빅3'로 분류된다. 김영득 팔마청백리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충훈 전 순천시장,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도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소속은 김선동 전 의원, 대안신당은 기도서 전 전남도 의원이 입에 오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비서관이었던 서갑원 전 의원은 "4년전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은 순천 시민들께서 당시 여당의 힘을 이 용하려고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시민들은 현 정권의 당정청과 네트워크가 있는 '힘있고 경력있는 후보'를

찾을 것"이라며 자신의 비교우위를 주장했다.

13일 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을 사임한 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다음달 11일 순천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늘날 순천민국가정원을 있게 한 노관규 전 시장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최근 어머니를 여의고 아내와 아들의 투병을 함께하면서 꾸준한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보여왔다.

노 전 시장은 4년전 총선에서 맞붙은 이 의원의 행보에 대해 "굉장한 고심 속에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자신을 선택해 준 순천시민의 모습을 기억하고 어디서든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예비후보 등록 시점

에 맞춰 특화된 공약도 밝히겠다"며 "신년초 좀 웹툰형식의 출판기념회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 '다크호스'로 떠오른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두 번의 전남도교육감과 순천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봄 이후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의원은 2번에 걸쳐 지역을 위해 애쓴 정치인이었다"며 "서울에 가서도 성공하면 우리지역 사람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선거는 자신이 해왔던 것에 대해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남의 목소리에 개의치 않고 시민만 보고 가겠다"며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다음달쯤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시민과 만나는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김영득 팔마청백리재단 이사장은 앞선 3명의 입지자들에 비해 뒤진 인지도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충훈 전 순천시장은 순천시민들에게 받은 사랑과 고마움을 감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로 시민 앞에 서길 기대한다.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1월 중순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호남최초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된 김선동 전 의원(민주당)도 3선을 꿈꾸고 있으며, 대안신당의 기도서 전 전남도 의원도 지역 민심을 짚는 진솔한 일꾼론을 펼치며 총선 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이 쟁점인데 한국당, 국정농단 방점 이유는?

최근 정국의 최대 이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정작 대외 공세의 초점은 '친문(親문재인) 3대 게이트'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한국당은 전날(1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검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친문인사의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을 '3대 게이트'로 규정했다. 또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국정

한국 한 관계자는 "국회는 여결 수 없다. 결국 표 대결을 펼치면 다수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꼬집으면 공수처법은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이유를 측근 비리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측근 비리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 자체를 무마시키고, 어떤 정치인에 대한 수사만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선거법·공수처법 국면이 끝나면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같은 도덕성 논란을 쪽이 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의 이같은 행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논

국회 본회의 표대결서 '4+1'에 수적 열세

文정권 도덕성 꼬집어 공수처법 명분 약화

농단을 하나하나 밝혀 국민에게 폭로하겠다. 다 드러나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이 이처럼 선거법·공수처법보다 '3대 게이트' 비판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결국 국회 본회의 표대결에서 불리한 상황 탓이 크다. 측근 비리 지적을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이유를 높이고, 이어지는 도덕성 논란을 총선국면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활용해 본회의 상정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일단 본회의 상정이 되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과 비교 수적 열세를 뛰어넘을 수 없다.

란에 휩싸이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것에 대한 반발감도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3대 게이트 비판 일정을 계속 '국정농단'으로 이름 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 세력'으로 이름 붙이며 등장한 문재인 정부 역시 도덕성 문제에서는 별다른 것 없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범여권 세력에 비해 우리는 소수다. 이들은 필리버스터라는 최소한의 수단도 못쓰게 봉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선거법·공수처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과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리는 것. 양쪽"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前국회의장이 총리?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

천정배 대안신당(가칭) 의원이 1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자로

“이런 식이라면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

“헌법·법치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정신 깎는 것”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신독재 시절에나 있음직한 발상”

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과 민주법치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 정신을 이렇게 깎아도 되는 것이냐”며 이렇게 밝혔다.

천 의원은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로 삼겠다니 놀랍고도 곤혹스럽

다”며 “1년여 전 국회의장직에 앉아 있던 분이 총리로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당하는 장면을 떠올리니 털갈이 주춧대입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 측에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이라면 저는 국무총리 인준투표 때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나 정 전 의장께서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